



정교회 주보

한국 정교회 대교구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Tel (02) 362-6371
Fax (02) 365-2698
orthodoxkorea.org



1975년 12월 1일, 한국 정교회 부임을 위해 최초 입국한 소티리오스 대주교(당시 대신부)를 김포 국제 공항에서 맞이하였다. (사진 가운데 꽃다발 들고있는 분)

마태오 제2주일

성 다비드 데살로니카의 수도자
(제1조 + 조과 부활 복음 2)

성 요한 크리소스토ム 성찬예배

- 제1조 부활 찬양송 ----- 81
- 수도자 찬양송 ----- 85
- 성당 찬양송
- 주일 시기송 ----- 85
- 사도경 : 로마서 2,10~16 -----
봉독서 124
- 복음경 : 마태오 4,18~23 -- 108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고이 잠드신 하느님의 종, 영적
아버지 소티리오스 대주교의 영
혼의 안식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에 대하여

'평화'는 우리의 삶에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세상
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평화라는 주제는 성서에서, 특히 신약성서에서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밤중에 태어나셨을 때 천사가 부
른 찬양송을 생각해봅시다. "하느님께는 영광, 땅에
서는 평화" 또 다른 예를 보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지금 우리 삶에서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
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성서의 가르침을 기억합
시다.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며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힘쓰시오. 거룩해지지 않으면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히브리 12,14)

(故 소티리오스 대주교 강론 중에서)

나는 단지 하느님에 대해서가 아니라, 하느님을 압니다

크리스토퍼 무어 신부



우 리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하느님은 선하시다'에서 '하느님, 당신은 선하십니다'로 바뀔 때, 삶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 말은 하느님에 대한 어떤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말은 하느님 당신과 나누는 대화를 포함합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나 신부님이 하느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나에게 말해줄 수 있고, 나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인격적으로 하느님의 선하심을 경험했거나 하느님의 선하심이 나를 온통 감싸고 있음을 깨달아 알고 있나요? 예수님이 단지 나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친구라고 부르셨음을 실감하고 있나요?(요한 15,15)

예수님은 내가 그분을 친구라고 부르기 전에도 나를 친구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이 지상에서 가까운 친구를 가지고 있지만, 그 관계는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의 우정보다 더 깊을 수는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가장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나는 나의 희망, 의심, 비밀, 상처, 기쁨 등을 예수님과 함께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아시고, 나는 그분을 알 수 있습니다.(갈라디아 4,9; 1고린토 8,3) 하느님을 얇으로써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됩니다.(요한 17,3; 필립비 3,10~11)

이처럼 하느님을 경험하고, 하느님을 깊이 있게 아는 것은 우리 모든 신자가 갈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느님께로 더 가까이 데려다주며 일생 변치 않는 신앙으로 이끄는 영적 경험을 우리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마음이 '나는 단지 하느님에 대해서가 아니라, 하느님을 압니다!'라고 말하게 되도록 기도합니다. 분명코 이런 경험은 우리가 직접 제공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느님 만이 이런 상황을 마련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이들이 살아계신 하느님을 만나도록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수도원에 가거나,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을 관찰하는 것, 예배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정교회의 수련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 박애(博愛)의 정신으로 교회 공동체가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일 등입니다.

지난주는 '모든 성인들의 주일'이었습니다. 이 기간에 우리는, 하느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시는 일과 교회가 성장해가도록 하시는 일 그리고 성인이 나오도록 하시는 일을 결코 중단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와 우리의 아이들을 채우시고,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느님과 더 깊은 만남을 갖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또한 하느님이 사랑하시는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빛은 우리와 함께 시작합니다

아타나시아 봉사자



등 대를 지키는 사람은 자신이 관리하는 등대 불빛의 환한 빛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만일 등대 불빛이 꺼지거나 반사경이 칙칙하게 흐려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질문을 받게 되자, 등대지기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저 바다에는 배들이 항해하고 있습니다. 만일 오늘 밤 이 등대의 불빛이 꺼지게 된다면, 누군가는 재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눈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마을은 드러나게 마련이다. 등불을 켜서 뒷박으로 덮어두는 사람은 없다. 누구나 등경 위에 얹어둔다. 그래야 집 안에 있는 사람들 을 다 밝게 비출 수 있지 않겠느냐? 너희도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마태오 5,14~16)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빛이나 어둠을 뽑아내고 있으며, 거기에는 결코 우리가 통제하거나 멈출 수 없는 어떤 영향이 잔물결처럼 퍼져나갑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외부의 영향을 조금도 받지 않거나 어떤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은 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행하는 것 모두가 어떤 파급효과를 지닙니다. 그것은 남을 다치게 하거나 남에게 도움을 줍니다. 그것은 남을 바른 길로 인도하거나 잘못된 길로 이끕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도록 이끌거나 그렇게 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내보내는 이런 영향들에 대해 우리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우리가 그 책임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인천 성 바울로 성당 축일을 축하합니다

6월 29일(수)에 맞는 인천 성 바울로 성당 축일을 축하합니다. 하느님의 축복과 성 바울로 사도의 중보로 다니엘 나창규 대신부님과 모든 신자가 영적 신앙생활에 정진하며 풍성한 결실을 맺어 나가길 기원합니다.

故 소티리오스 대주교를 기억하고 추모합니다

고인의 영혼의 안식을 위한 40일 성찬예배가 계속 거행되고 있습니다. 구세주 변모 수도원과 서울 성당에 이어서 이번 주(6,27~7,2)는 부산 성당에서 거행됩니다.

또한 고인을 추모하는 분들이 계속 수도원을 방문하여 묘소에 참배하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수)에는 암브로시오스 대주교와 미국 수도원에서 오신 안토니 수도신부가 성찬예배와 추도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주간 예배 안내

- * 6월 29일(수)
성 베드로와
성 바울로 사도
- * 6월 30일(목)
12 사도 연관 축일
- * 7월 1일(금)
성 코즈마스와
성 다미아노스 자선 치료자
오전 9시: 축일조과, 성찬예배
(지역 성당 예배는
해당 성당에 문의바랍니다.)

소식

■ 암브로시오스 대주교, 아타나시아 봉사자 출국

오늘(26일) 밤, 두 분이 함께 그리스도로 출국합니다. 대주교께서는 그리스에서 한국 선교 협력을 위한 여러 모임을 주관하며, 총대주교청에서는 총대주교께 한국 교회 업무를 보고하고 현안을 논의합니다. 아타나시아 봉사자는 건강상의 이유로 그리스를 방문합니다.

■ 크리스토퍼 신부 가족 출국

지난 3년여 동안 울산 성 디오니시오스 성당에서 봉직했던 크리스토퍼 무어 신부가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출국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사목 활동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편 울산 성당 사목을 위해 미국 애리조나의 성 안토니 수도원에서 안토니 수도신부가 입국하였습니다.

■ 세계 총대주교청 주관, 환경과 생명 관련 회담

지난 6월 8일부터 11일까지, 콘스탄티노플과 할키 신학교에서 제5회 할키 정상 회담(Halki Summit V)이 열렸습니다. '지구의 미래를 함께 지속해나가기'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회의는 환경 보호에 앞장서는 세계 총대주교와 교황 두 지도자의 노력과 예언자적 목소리에 영감을 받아, 세계 총대주교청과 이탈리아의 소피아 대학 연구소 공동으로 주최되었습니다. 바르톨로메오스 총대주교께서는 기조연설에서, 성찬의 관점에서 피조물을 바라보고 접근하는 것을 잊지 말자는 권고를 전하셨습니다. 우리 대교구에서는 그리스에서 신학을 공부 중인 Chris Jonker 교우가 대표로 참석하여, 정교회가 세계에 대한 예언적 증인이 되면서 실제로 지구 기후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토론에 참여했습니다.